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골김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비위에 거슬리거나 마음이 언짢아서 성이 나는 김.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수록 용례
10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골김'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비위에 거슬리거나 마음이 언짢아서 성이 나는 김.

골김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골김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골김 사전 표기 요약	—	—	—	—	●→	●→
골씸 문헌 수록 표기	—	—	—	—	●→	●→
골ㅅ김 문헌 수록 표기	—	—	—	—	—	●→
골낌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골김
  19세기20세기현재
- 골ㅅ김

20세기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4종
골김, 골쌤, 골ㅅ김, 골낌

골김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골김’은 19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말의 구성과 어원

‘골김’은 벌컥 내는 화를 뜻하는 ‘골’과 어떤 일의 기회나 계기를 뜻하는 ‘김’이 결합한 것이다.

표기와 소리의 특징

19세기부터 ‘골김’에 사이시옷이 들어간 ‘골쌤’이 나타나며 20세기에는 ‘골ㅅ김’과 같이 표기되기도 하였다. 된소리를 같은 글자를 반복하여 표기한 ‘골낌’도 나타난다.

오늘의 형태로 이어진 과정

20세기까지 ‘골김’, ‘골ㅅ김’, ‘골쌤’, ‘골낌’ 등 여러 형태가 쓰였으나 ‘골김’으로 굳어졌다.

문헌 속의 골김

전체 용례 10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골김, 골쌤 용례 2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골김, 골쌤

출처 1864 남원고사 3:30ㄴ

용례 01

문헌 용례

ᄉᆞ쏘 눈ᄉᆞᆯ 집흐리고 ᄒᆞᄂᆞᆫ 말이 ᄌᆞ네ᄂᆞᆫ 웨 이리 삐앙이질 ᄒᆞ노 허허 고이ᄒᆞᆫ 손이로고 골김에 우루져혀 짐짓 호령ᄒᆞᄃᆡ.

현대어 풀이

사또가 눈살을 찌푸리고 하는 말이, “자네는 왜 이리 쌩이질을 하는가. 허허, 고이한 손님이로구나.” 골김에 부르짖어 짐짓 호령하되.

출처 1897 한영자전 PART I :272

용례 02

문헌 용례

골씸에.

현대어 풀이

골김에.

20세기 골김, 골ㅅ김, 골씸 외 1종 용례 8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골김, 골ㅅ김, 골씸, 골낌

출처 1908 귀의성 하:116

용례 03

문헌 용례

실셩한 사람갓치 즁얼거리다가 옷 입은 ᄎᆡ로 골김에 드러누엇더라.

현대어 풀이

실성한 사람같이 중얼거리다가 옷 입은 채로 골김에 드러누웠더라.

출처 1923 개벽 제38호157면

용례 04

문헌 용례

홧김에 고양이와 개는 서로서로 「너 때문에 그랫지」 「너 때문에 그랫지」하고 원망을 하다가 개는 골김에 그냥 집으로 도라가고 고양이는 암상이 나서 집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5 동아일보 11월 12일 6면

용례 05

문헌 용례

변 부사가 골ㅅ김에 다 몰아 내치기는 하엿스나 다시 생각하여 본즉 모양도 아니 되고 제일 그곳 소식을 물을 곳이 업서 걱정이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6 동아일보 10월 2일 6면

용례 06

문헌 용례

아씨는 골김에 솟이 써러질 줄도 몰으고 비로 후려첫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8 동아일보 9월 8일 3면

용례 07

문헌 용례

그래서 나는 골씸에 채원에다가 불을 질르고 도망해 나와서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면서 뎡주할 곳을 차젓지마는 어대 그리 맛당한 곳이 잇서야 하지 안소.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3 조선일보 10월 26일 4면

용례 08

문헌 용례

텬왕동이가 술씸과 골씸에 기집의 쌈을 한번 호되게 처서 기집이 부어올르는 쌈을 손으로 덥고 방성통곡까지 하게 되니 술싸리가 깨어지지 안흘 쑤 업섯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5 동아일보 5월 23일 3면

용례 09

문헌 용례

골낌에 비웃어 주엇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5 개벽 신간 제4호 58면

용례 10

문헌 용례

골김에 흙을 되는 대로 내꾼지고는 침을 탁 뱉고 구뎅이로 들어간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골김 관련 낱말

김

골김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골김의 뜻과 역사